

신비한 정신의 진화

| 거이 머쉬 | 심정요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위대한 종교의 스승들은 모두 한가락의 음조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저자는 그 이유를, 이들 모두는 같은 신과 교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신에 관한 가설

우리는 신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다음의 옛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을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가슴 속에 초록색 큰 가지를 품고 있으면 노래하는 새가 날아올 것이다.” 수많은 흰쥐를 가지고 실험할 신성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한 생물학자를 나는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종의 초지성(superintelligence)을 지닌 존재가 때때로 자기와 비슷한 목적으로 우리를 대할지도 모른다

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시인류의 모든 인종들은 신비로운 힘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힘은 태양, 달, 별, 번개, 화산, 혹은 살아있는 기타 생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에 따르면 신비한 힘은 그들이 몸담고 있으며 교감을 나누고 밤마다 노래를 지어 바치는 숲이다. 어느 피그미족 노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매우 현명하며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고 있으며 그가 숲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숲에 노래를 불러주고 그가 뭐라고 속삭이며 대답하는지 경청한다.” 훨씬 남쪽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가 속해있는 전 세계에 공통된 하나의 거대한 꿈이 있다. 그 꿈은 자면서 꾸는 보통 꿈이 아니다. 이 꿈은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우리를 꿈꾸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조차도 늘 우리를 꿈꾼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 꿈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점진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

이러한 개념은 언뜻 보기에는 마구잡이식으로 생겨나 제멋대로 인 것 같다. 근래 수 천 년 동안 크리스나, 부처, 조로아스터, 모세, 예수, 무하마드, 바하울라 등 주요 성인들의 가르침이 널리 퍼졌는데 각 성인들은 각자의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러나 행동 규범이나 교리가 너무나 다양한 나머지 중세시대 성전에서부터 현재 인도 힌두교도와 무슬림교도의 전쟁, 근

동 지역의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전쟁 등 격렬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볼 때, 이들 종교들 간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같은 세월 동안 발견된, 종교의 차이점과 비교할 때 과학적 원리의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과학과 종교처럼 서로 동떨어진 주제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연구한 결과 둘 사이에는 분명 유사성이 있다. 과학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등 위대한 스승의 지도 하에 연달아 위대한 발견을 하며 성장했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성자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고를 진화시켰다. 이들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간 과학자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보았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종교계의 스승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축이 아니라 한 톱니바퀴의 톱니처럼, 한 그루 나무의 가지처럼, 한 바다의 파도처럼, 한 가락의 음조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도록 하자. 결국, 이들은 같은 신과 교류했다. 신을 여호와라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성령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그들은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적이었던 것이나,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오와 뉴턴에 분개했던 것에 비할 때 서로간은 덜 적대적이다. 부처가 크리슈나를 부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가 모세를 반대하거나 십계를 무효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무효화하기는커녕 예수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법률과 선지자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과학보다 종교에서 점진적 계시를 받아들이기 힘든 유일한 이유는 종교가 좀 더 감정적이고 완고하며 덜 이성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의 열렬한 신봉자들이 종파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개신교가 산산이 흩어져 무려 백 개도 넘는 교파로 분열되고 종파 간 차이를 융화시키기 위해 새로이 일어난 세계 교회 운동조차 오로지 기독교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내가 아는 바로는) 주요 종파 간의 차이점을 융화시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역사를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 위대한 종교적 승들은 제자들과는 달리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이 유지하는 관계와 유사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테면, 6살 어린이들을 맡은 1학년 담당 선생님은 십대의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홍수 이전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각각의 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직원이다. 그들은 같은 교장선생님에 의해 고용되었고 또 교장선생님은 같은 학교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며 이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서로 다른 연령에 속한 아이들, 다양한 이해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교수 기법과 훈련을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선지자들이 인류를 가르쳐온 방식이다. 모세는 자신의 버릇없는 군중들에게 오늘날 모세 율법(Mosaic Code)으로 알려진 다음 법령을 내렸다. “생명은 생명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이는 이로서 갚는다.”(출애굽기 21:23-24) 이런 식의 정의는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잔인하고 외관상 복수를 부추기는 듯하다. 그러나 3천년도 훨씬 더 된 초기의 유대인들이 역사상 최초로 기록하고 복종한 이 도덕률은 감옥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 그들에게 신속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정의였다. 이 법률로 인해 그들은 그때까지 알려진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을 갖게 되

었다. 이 법률은 모세의 시대에는 진보적이며 훌륭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1,300년 후 예수가 나타나자 서구의 문명화는 요람에서 벗어나 그리스의 황금시대를 거쳐 로마 제국의 부흥기로 들어섰다. 이 시기, 인류는 방대한 지식을 집대성하는 업무를 마쳤다. 분명 인류는 보다 성숙한 영적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덕분에 종교는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600년 후 아라비아 바로 뒤에 위치한 땅에 무하마드가 나타나서 합리적 재산을 정립하고 일부다처제를 제한하여 아내를 네 명까지만 허용하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을 금지시키는 등 보다 높은 영적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9세기에 들어와 중세 페르시아의 바하올라가 새롭게 주목받았다. 그는 현대시대에 지금까지 나왔던 규범 중 가장 계몽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조화, 형제애, 보편적 교육, 분별력, 세계적 언어와 세계 정부를 강조했는데 이들은 모두 현대에 절실히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제, 이러한 신비로운 인물들 모두가 점진적 신의 계시라는 끝없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 숭고한 연결고리는 영겁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잊혀진 선사시대의 선지자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미래에 등장할 선지자에게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특히 앞서 언급했던, 과학의 점진적 계시 연결망과도 평행을 이룬다. 비록 종교의 주요 스승이 당시 위대한 과학자들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상당히 이끌렸으며 그 느낌을 표현했다. 이들은 이전의 스승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천년 후에 더 고귀한 스승이 등장하리라 예언했다. 이를테면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요한 16:12-13):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

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바하올라가 등장하면서 18세기에 실현되었다. 바하올라는 특히 자기 자신을 바로 최후의 만찬에 언급된 진리의 성령이라고 선언했다. 바하올라의 선언은 삶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되었다. 사실 그는 위대한 선지자 중 가장 현대적이다. 그의 메시지는 인류 대다수가 지구의 가장 높은 발아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참신한 교리를 내세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바하이교를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과학과 종교

세계의 대발견에서 독특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리는 절대 빠뜨려서는 안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독립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권리로서, 종교와 과학의 필수적 조화라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바하올라는 그의 200권이 넘는 저서와 서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과학과 종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 새는 곧 인류다.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과학이라는 날개에 종교의 통찰력이 결여되면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다. 반면 종교라는 날개에 과학의 합리성이 결여되면 미신에 빠지기 쉽다.”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나는 그 역시 바하올라의 견해에 동의했으리라 확신한다. “과학은 오로지 사물이 ‘무엇인지’만 규명할 수 있다. 사물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규명할 수 없다.”, “종교가 목표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종교 역시 과학에서 배워야 한다. 좀 더 넓은 시각에

“과학과 종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 새는 곧 인류다.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과학이라는 날개에
 종교의 통찰력이 결합되면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다.
 반면 종교라는 날개에 과학의 합리성이 결합되면
 미신에 빠지기 쉽다.”

서 보면, 과학은 종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약하면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바하올라가 과학과 철학의 선구자는 인류의 ‘눈’이라고 강조했을 때 그가 다른 과학자들 중에서도 아인슈타인을 칭송하는 선견지명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보이는 우주보다 더 실재적이지만, 이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전환기를 맞은 세기의 실용적 과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과 철학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이란 “물질에 스며든 영(spirit pervading matter)”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자. 이는 위대한 종교적 스승 모두가 진심으로 수긍하는 바이다. 한편 실제로 지구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돌고 있으며, 누구도 간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운행하고 있다. 신비의 지평선은 지식의 수평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v_m = v_k^2$ 이라는 방정식에서 신비의 속도는 지식의 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태양 아래서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신비의 수평선을 없애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뛰어난 현대 과학자와 심오한 선지자의 신념과 일치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신비주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태양의 운행에 좌우되는 이 지구라는 배에 탄 겸손하고 명상적인 승객에

게는 매우 적절한 접근법이다. 또한 매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발견된 비물질적인 세계의 실체와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장(field, 場), 파동, 널리 퍼져가는 지성까지도 온전히 포용한다.

우주의 나선형 결정

만져지지 않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무(無)가 아니라 신비한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공간이란 이미 언급했던 드문드문 퍼져있는 수소분자, 산소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그리고 생명을 존재하게 해 주는 다수의 복합분자 이외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분자들의 구조는 무엇일까? 이 분자들이 완전한 개체의 일부라 볼 수 있도록,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이나 측정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창세기의 맨 첫 번째 줄에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지구는 아직 ‘형태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 ‘깊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여 성운 모양의 혜성과도 같은 지구의 태어나지 않은 바다를 능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이제 알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유한한 시공간의 천공에는 결정체가 있다. 결정체의 형태는 이론상 모래시계의 허리와 같은 나선형 매듭으로 되어있어 모래시계의 허리를 연상시킨다. 어떤 기하학자가 말하듯이 결정체의 구조는 단독으로는 염주 모양을 하고, 여러 개 모인 것은 나선형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 허리 모양의 매듭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관계를 표현하는 추상적 선형이며 조상이 깔때기 모양의 관에서 퍼뜨린 분자, 종자, 씨앗, 난자, 박테리아 세포와 조직을 물려받는 모든 생명체의 중심부에 있다. 이 관은 생명체의 과거를

뒤로 하고 있으며 앞에는 미래를 위한 유사한 깔때기가 놓여있다. 우주 곳곳에 있는 나선형은 구체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며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나선형을 띠고 있는 것들은 은하수의 별들, 초은하단뿐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이다. 그리고 원자의 형태와 경로도 나선형이 지배적이다. 타원형 궤도로 움직이는 물체나 입자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나선형을 그리며 우주 공간을 통과하면서 세계에 태양, 달, 별, 행성의 진로를 알려준다. 액체와 가스체와 같은 유동체 역시 우리가 보았다시피 나선형으로 나아간다. 바다의 거대한 해류, 강, 소용돌이, 허리케인과 하늘의 제트기류, 천둥이 일으키는 좀더 작은 폭풍, 모래 폭풍을 일으키는 토네이도, 기둥 근처에 떨어지는 눈더미,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은 물론 태양과 별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소용돌이 모양의 흑점과 함께 천체를 흐르는 플라즈마도 나선형을 띠고 있다. 나무, 덩굴, 식물과 뿌리 대부분이 나선형이다. 조개껍데기, 석순과 같은 특정 크리스털, 뼈, 솔방울, 꽃, 씨앗, 근육의 섬유, 벌레, 군사체, 군사체의 분자, 특히 단백질, 긴 신경세포, DNA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 등도 모두 나선형이다. 이들은 모두 진화의 유전적 연결고리가 되는 추상적 선형으로서 자기선, 보이지 않게 굽이진 공간과 아직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원자핵의 핵심 역시 심층 팔구 나선형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 개념인 근원(Urgrund)으로 초월해 들어간다.

신의 상대성

신비로운 힘, 또는 신이 이 모든 우주적 기하학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맞는지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마틴 부버(Martin Buber)가 이

야기한 대로 ‘세계가 일종의 생성’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계를 창조’한다면 물질적 구조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본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기하학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점이 사용되므로 물질적 구조가 상대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신의 상대성을 고려해보자. 신은 일반적 원리인 상대적 존재로서 내 생각에는 모든 사물과 무에 편재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틀림없이 신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기는 출생 전에는 비인격적이고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출생 후에는 독재적이긴 하지만 매우 인간적인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그때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 당신에게로 오는 듯 했다. 이를테면 모유와 사랑과 안락함을 어머니가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지만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자주 꾸중한다든지 말리느라 찰싹 때린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이 경우에도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군주요 절대자였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간과 개의 관계, 혹은 개와 벼룩의 관계도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와 대충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벼룩에게 개는 생계수단을 제공해주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며 안식처요 자주 징벌을 내리는 존재라는 면에서 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벼룩의 입장에서 개가 벼룩이 사는 곳을 굶는다거나 때린다는 것은 형벌과 유사하다. 내 생각에 그것은 석기시대의 인간이 생각을 할 만큼 진화했을 때, 천둥을 동반한 폭풍에 호되게 당한 뒤 그 폭풍을 신의 분노라 생각했다는 유명한 일화와도 비슷하다. 더구나 개가 벼룩에게 신성의 상징이 되고, 벼룩에 살고 있는 세균에게는 벼룩이 신으로 여겨진다면, 신의 상대성을 실제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 신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생세계의 계급구조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소우주로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대우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마음과 영혼이라는 신비롭고 불가해한 계층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모기나 파리 등 집에 침입한 어떤 ‘벌레’든 찰싹 때려잡는데 익숙해져 있다거나 새, 애완동물, 식물 등 돌봐주어야 할 뭔가를 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들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들의 생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신의 역할을 일부 떠맡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 당신의 동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신의 동기만큼이나 불가해할 것이다. 이 은유는 적어도 신앙심의 상대성을 설명할 때 적절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을 때 이 원칙에 대해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현명하고, 하나님의 약점은 인간의 약점보다 강하니라.” 어떤 관점에서 (아무리 신성한 존재라지만)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바울의 말이 옳다면, 그 누가 심오한 지혜와 신성이 극락 너머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집은 많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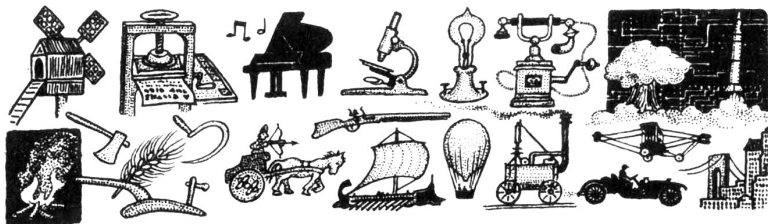
세상은 왜?

사람들은 대체로 지구를 물질적 세계로 인식한다. 그중에는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희귀한 특권을 누리는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들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에드거 D. 미첼(Edgar D. Mitchell)은 그가 쓴 글로 보아 더 많은 것들을 보았다. “지구를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고 있는 지구가 대단히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바탕에 하얀 무늬가 있는 보석이 검은 벨벳

같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죠. 신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주의 생명체들은 단지 무작위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은 즉시 지성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험적 지식이었죠.” 미첼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래 전 철학자 윌리엄 어니스트 호킹(William Honest Hocking)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이 기억난다. 지구와 멀리 떨어진 쾌적한 행성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누구든 수많은 기회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외부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사회든 자신이 선호하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행성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나? 몇 명만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나가듯 가볍게 말했다. “글쎄, 사실이지. 이제 자네들은 우주를 홀로 자유롭게 떠다니는 외딴 행성에 있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어떤 꿈이든 이를 수 있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바로 지구였다. 누가 이보다 더 현실적인 도전을 꿈꿀 수 있는가? 누가 지구보다 더욱 생기 넘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을 바라는가? 이는 마치 하늘의 천사가 불만 속에 날개를 퍼덕이며 신에게 애원하는 것과 같다. “인간들이 붙어있을 만큼 위험한 곳을 어디서 찾죠? 너무 더워서 발붙일 수 없는 별과 너무 추워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별 중간에서 훌륭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작은 별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독자들이여, 좋든 싫든 이 별이 바로 지구다. 지구는 사실 소풍가기 좋은 작은 숲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지구는 당신의 집도 아니다. 사실 집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의 무덤이다. 지구가 당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어떤 경우든 당신이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의문이다. 당신의 몸을 생각해보자. 몸은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세계의 것인가?

불가능한 진화



세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증대한 세계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 세계의 역사는 인류가 문자적으로 하나씩 현실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끝없이 전념했음을 보여준다. 기원 백만 년 전에는 불을 붙이는 것이 기적이었고, 기원 만 년 전에는 자신의 식량을 자급자족 하는 것이 기적이었다. 기원 5천 년 전에는 바퀴가 기적이었다. 금속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엔 승마가, 다음엔 항해가 기적이었다. 기원 1400년에는 활자로 책을 인쇄하는 것이 기적이었다. 1700년에는 엔진이 기적이었으며 1780년에는 인간이 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었다. 1835년에는 먼 거리에서 즉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으며 1950년에는 우주여행이 기적이었다. 이러한 기적은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가장 큰 기적은 이토록 믿을 수 없는 체계 밑에서도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가 너무나 많은 파괴와 낭비, 고뇌 속에서 운영되면서도 실제로는 핵심적인 기능이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인류는 이렇게 외친다.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은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 외침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핵심 질문으로 요약된다. “왜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온 걸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신과 나는 어째서 지구라는 이 혼란스러운 먼지 위에서 불쌍한 벌레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은 어렵다.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붙들고 수 천 년 동안이나 씨름해왔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그동안 세계는 생물학자 J. B. S. 홀데인이 인정했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지고 복잡해졌으며 맹렬해졌다. 어찌나 불가사의한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이 한 분 계시다고 하자. 그의 왕국에 이런 불완전성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숙고해보아도 지금까지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이론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과정 신학’이다. 이 이론은 신을 우주 속에서 영원히 발전하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가 주장하는 철학의 바탕을 이룬다. 화이트헤드는 수학자로서 절대주의라는 정적인 중세적 개념에 시간 차원을 추가하여 현대 물리학, 생물학, 진화론, 심지어 심리학에서 발견한 이론과 더욱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 신을 보고 유한한 시간 필드에 결합시켜 신을 제한하는 면은 있지만, 내가 이해한 바로 화이트헤드는 모든 생명은 실제로 신의 일부라고 밝힘으로써 신이 전지(全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신은 어디서든 당신과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감각, 삶, 영감, 희생, 창조를 통해 영원히 느끼고 안다. 사실 창조주가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 피조물들은 신의 중대한 일부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작은 것들도 신의 창조성을 일부 반영한다. 따라서 신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여 신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아

직 미완성 상태로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한 필멸의 시공간 연속체의 한계 내에서도 신이 고대에 겪었던 고통이 우리의 현재 삶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겪는 일시적 고통과 의심, 투쟁과 느린 진화가 신의 영원한 전능성에서 미약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seven mysteries of lif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거이 머쉬(Guy murchie)** | 1907~1997. 학교교사, 파일럿, 저널리스트, 사진가, 종군기자,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함. 1956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로상을 받음.

역자 | **심정요** | 덕성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하고픈 일을 찾다가 번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외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디셔너리>(가제)를 공동번역중이다. 번역서로 김동미 님과 공역한 아동서 <엘로이즈의 목록 소동>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The seven mysteries of life

Guy murchie 저 | Mariner Books 刊 | \$19.95

저자는 지구 밖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관조하듯 우주의 본질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다양성에 이르는 일곱 가지 신비를 풀어간다. 저자의 17년간의 다방면의 연구가 집약되어 있어서, 참으로 풍부한 지식과 통찰을 담고 있다.

